

DIGITAL ACCESSIBILITY CERTIFICATION

dac.or.kr



디지털 접근성 인증

by 이투데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투데이피엔씨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 시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고령 소비자가 안심하고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과 정책은 고령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 또한 고령 친화적 서비스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지 <이투데이>와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 인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한국 접근성 평가 연구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증 제도에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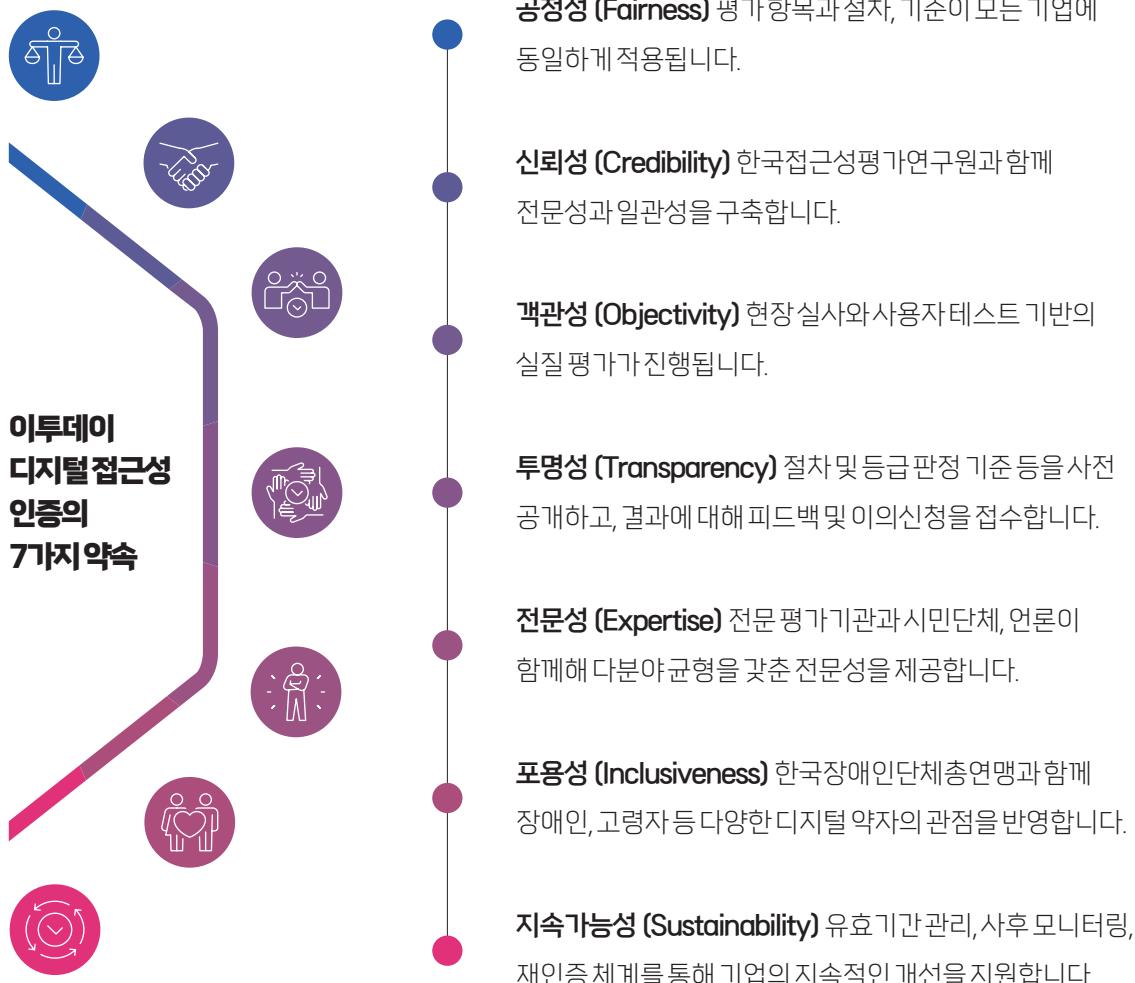
1 제도 개요

디지털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권 및 배리어프리 환경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키오스크,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주관 「이투데이피엔씨」

인증 협력  서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인증 평가  한국 접근성 평가 연구원
Korea Center for
Accessibility Assessment & Research



2 디지털 접근성 인증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디지털 접근성의 인증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디지털 키오스크 및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28일부터 모든 관광사업자 및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접근성 기준 적용
- 2026년 1월 28일부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전면 의무화

정당한 편의란?

키오스크, 무인발권기, 셀프POS 등 디지털 기기에서 음성 안내, 화면 확대, 점자 안내, 높낮이 조절, 바닥 유도라인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니다.

인증 없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디지털 접근성 미비는 곧 차별로 간주됩니다.” 장애인 또는 고령 이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차별행위로 제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 불이행에 대해 시정권고, 공표, 형사고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배상책임 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법적 대응의 방패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인증은 귀사가 정당한 편의를 성실히 제공하고자 한 노력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소송·민원 발생 시, 고의성 없음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 처벌 완화 및 명예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의료·금융기관, 교통 및 관광업체 등 공공성 있는 기업은 법률 위반 시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 접근성 의무화에 따라, 모든 기업은 지금부터 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접근성 인증은 귀사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미국과 EU 시장으로 디지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3 디지털 접근성 인증 대상 및 범위

구분	대상 설명
디지털 기기	키오스크, 무인정보단말기, POS 등
운영사업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금융회사, 대중교통, 관광업 등
가전제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기 등

※ 모든 평가 대상은 「장차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배리어프리)을 통합 평가

※ 가전제품의 접근성 요구사항은 한국 접근성 평가 연구원에서 개발한 '가전제품 접근성 시험 평가 기준'을 적용.

4 디지털 접근성 인증 효과

법적 리스크 완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기업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접근성 인증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법적 분쟁 시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인증 마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인증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 및 홍보가 가능하여,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SG 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접근성 인증은 ESG 경영의 'S(Social)' 요소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은 포용적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조달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확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의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연계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전문가 단체를 통한 검증

접근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직접 평가를 통해 인증 심사가 이뤄지며, 그 결과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 접근성 평가 연구원이 보증합니다.

5 디지털 접근성 인증의 언론 기반 특화 홍보 혜택

경제신문 이투데이 연계 홍보

경제지 기반의 보도자료 송출: 디지털 접근성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투데이 지면 및 온라인 기사보도

기업 ESG 사례로 특집 기획 보도 가능: 인증 취득 배경, 노력, 사회공헌 등 CSR 성과와 함께 기업 인터뷰 기사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채널 홍보

전용 섹션 개설: '접근성 우수기업' 코너 운영을 통해 기업 소개 및 인증 사례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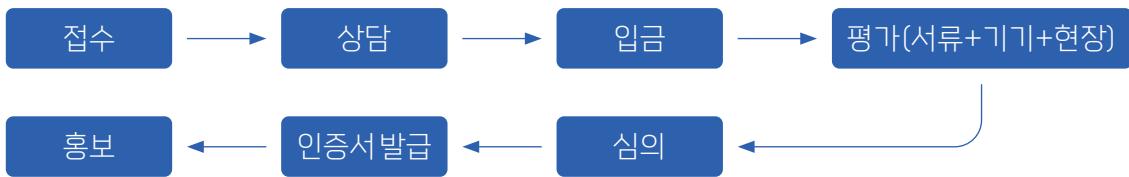
온라인 카드뉴스 / 시리즈 콘텐츠 제작: 실제 서비스 체험기, 키오스크 사용 후기 등 고령자 시선에 서 재구성된 콘텐츠 제공

구분	내용
인증마크 제공	기업의 서비스 기기나 매장 부착용 인쇄물 제작할 수 있도록 로고 제공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수사례 게시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기획 연재를 통해 인증 기업별 상세 사례 기사화 및 검색 노출
정기 뉴스레터 발송 대상 포함	인증 기업 대상 최신 정책, 제도, 관련 인센티브 정보 제공
포럼/세미나 초청	접근성 및 포용 기술 관련 포럼/간담회 우선 초청, 연사 기회 제공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인증 기업 대상 조달청 우선구매제도 추가 인증 할인 제공

6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명시된 키오스크 접근성 요구 기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 기준의 준수
- 무인정보단말기 전면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인증절차



- **서류평가** 편의 제공 서류 및 현황 점검 • **기기시험** 키오스크 UI/UX, 음성안내, 점자, 바닥 유도 등 검증
- **현장평가** 무작위 표본 사업장 실사 • **판정 등급** Ex(우수), S(적합), C(보완), NA(부적합)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무인정보단말기 배리어프리 평가 항목 5가지



물리적 접근성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의 위치,
높이, 접근 경로 등을
평가합니다.



조작의용이성 지체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조작의 편의성을
평가합니다.



시각정보의 인식
용이성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시각정보의
인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청각정보의 인식
용이성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청각정보의
인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해 및 사용의용이성
인지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이해
및 사용의 편의성을
평가합니다.

- 샘플 평가비는 계산상 예시이며, 실제 사업장 및 설치 기기 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앱 접근성 인증 및 가전제품 접근성 인증은 사무국과 상담 필요합니다.
- 기존 조달청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NIA 인증 기업은 할인 가능. (협의 필요)
- (사)한국접근성평가원이 개발하여 본 인증에 적용되는 “가전제품 접근성 지침”은 영국의 왕립전맹시각장애인기구 (RNIB)의 T&T 인증(Tried and Tested Accreditation)보다 더 엄격한 전문가 평가와 여러 유형의 장애인 및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평가에 기반한 접근성 평가용 지침입니다.

8 인증 유효 기간 및 유지 관리

- 정식 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기기예비인증: 유효 기간 1년 (1년 이내 조건부 본인증 신청 가능)
- 인증 후 정기적 실사 및 사후 관리 병행

9 인증마크

디지털 접근성 인증의 수준은 평가결과에 따라 두 종류로 발급됩니다.

- 시각적 통일성을 위한 브랜드 가이드라인 포함
- 포스터, 홍보물, 배너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정식 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기기 예비인증: 유효기간 1년 (1년내 조건부 본인증 신청 가능)



EX (인증우수)

인증우수

시험평가의 결과가 모든 검증 항목에서 70% 이상의 접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장애인과 고령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준.



S (인증적합)

인증적합

시험평가의 결과가 모든 검증 항목에서 50% 이상의 접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대부분의 장애인과 고령 사용자 의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

10 문의 및 신청

이투데이 디지털 접근성 인증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8, 9층

대표번호: 02-799-6793

대표메일: cert@etoday.co.kr

홈페이지: dac.or.kr

디지털 접근성 인증
by 이투데이·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DIGITAL ACCESSIBILITY CERTIFICATION

dac.or.kr